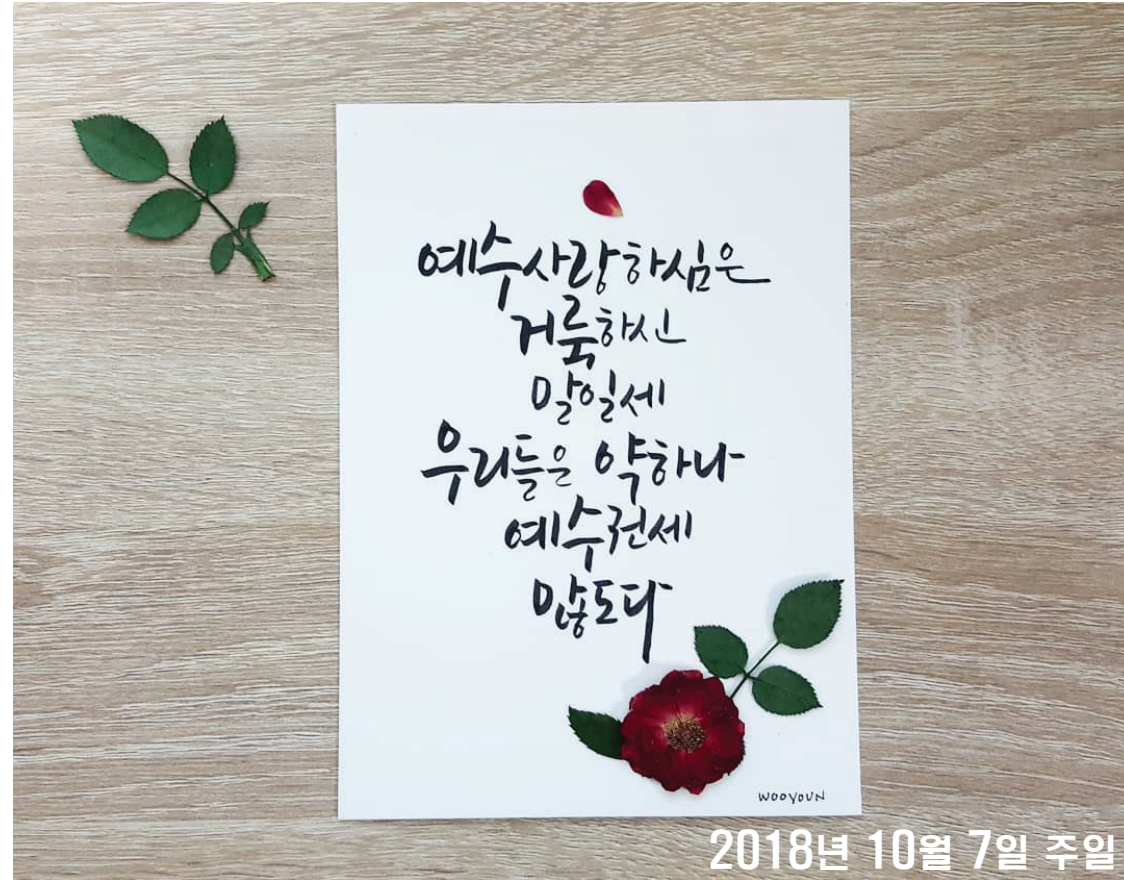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갈보리소식**

1. 오늘 말씀 선포하신 최용호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10월 28일 주일은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달이 되기 바랍니다.
3. 오늘 2부 예배 후 각 선교회 월례회는 내년 교회 창립 20주년에 어떤 사역들을 했으면 좋을 지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는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4. 2019년 단기 선교 신청자를 모집합니다(신청서 참조). 모집 인원: 13명 일시: 2019년 1월 중, 하순 (예정) 선교지: 바누아투 회비: \$1000 기간: 7박 8일 훈련: 11월(8주)
5. 오는 금요일(12일) 저녁 기도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저녁: 7시30분, 새벽기도회는 없습니다).
6. 교회 창립 20주년 준비를 위한 모임이 오는 14일 주일 예배 후 느헤미야실에서 있습니다(오후3시30분).
7. 유아실과 아동부실에 이동식 에어컨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증하실 성도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개당 약 \$700 예상).
8. 이태한 목사는 선교대회를 잘 참석했으며 서울 관악노회와 뉴질랜드 선교회와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9. 오클랜드 한인 교회 협의회 주관 연합 전도대회가 있습니다. 일시: 2018년 10월 13 일(토) 오후 2시 장소: 아오테아 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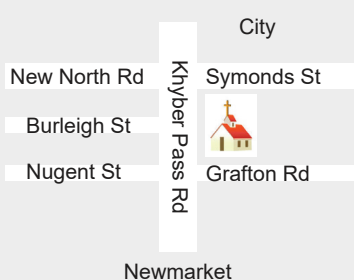
2018년 10월 7일 주일

교회창립 1999년 7월 18일

**찾아 오시는 길**

**예배시간 안내**

**섬기는 사람들**



주일 1부 예배	주일 AM 11:20
주일 2부 예배	주일 PM 1:00
청년 예배	주일 PM 3:15
수요 예배	수요일 PM 7:30
새벽 기도	금요일 AM 5:30
유아부	주일 PM 1:00
아동부	주일 PM 1:00
청소년부	주일 PM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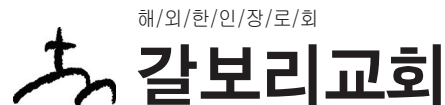
담임 목사 : 이태한  
부 목사 : 이성철  
부 목사 : 박태신

**설교 방송**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담임 목사: 이태한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369-5077 Ph: 09-475-6312  
mb: 021-968-388  
email: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주일 2부 예배**

오후 1시

찬 양	주일 찬양단
예배로 부름	시편 48:9-10
◎ 찬 송	즐겁게 안식할 날 43장
◎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찬 송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250장
대 표 기 도	박덕철 장로
성 경 봉 독	누가복음 14:16-20
찬양대 찬양	왕 중의 왕/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 교	소중한 일을 먼저 합시다/ 최용호 목사
찬 송	갈길을 밝히 보이시니 524장
헌 금 기 도	인도자
교 회 소 식	인도자
◎ 응 답 송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445장
◎ 축 도	최용호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10월 교회 사역**

10월 12일(금요일): 저녁기도회  
 10월 28일(주일): 감사주일  
 10월 31일(수요일): 공동체 주관예배

**10월 기도 순서**

이번 주 애찬: 신장우 집사  
 다음 주일: 현석호 장로  
 다음 주일 청년부: 홍예진 자매  
 10월 17일 수요일: 박후임 권사  
 10월 17일 애찬: 민경아 집사  
 10월 21일 주일: 박병민 장로  
 10월 21일 청년부: 채다운 자매

**10월 예배 봉사자**

예 배 안 내: 김철재/김영옥  
 새신자안내: 차영철/심경순  
 주 차 안 내: 김교섭/민광호  
 주 방 봉 사: 박제란/김명옥  
 김민경/민경아

**주일 1부 예배**

오전 11시 20분

**수요 예배**

오후 7시 30분

기 도	임혜자권사
성경봉독	마태복음 6:22-24
설 교	눈은 몸의 등불 이니/이태한목사
찬 송	384장
주 기 도	다같이

**청년 예배**

오후 3시 15분

기도 : 홍진솔 자매

**금주의 기도제목**

1.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해지는 교회, 성도간의 진실한 사랑이 체험되는 교회가 되도록.
2. 이웃과 지역사회의 구원을 위해 복음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도록.
3. 시대의 흐름을 읽는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분별력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매주 수요일 정오 12시는 투병 중인 성도(경덕현, 조은희, 김경수, 한상순, 임병숙)를 위한 중보 기도 시간입니다.

**선교와 중보기도**

이번 주는 태국의 심재우 선교사 소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저희 가족이 다시 방콕으로 돌아온지 2개월이 지나갔고, 가족 모두 잘 정착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태국에 다시 돌아오는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셔서 아이들 학교를 비롯해서 모든 것이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사역 이야기]** 저희는 태국에 들어오기 전부터 여러모양으로 사역에 대해서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NIBCM 국제선교회'라는 한 단체로 묶여져 있지만, 저희 단체의 모태로 1980년대부터 동남아시아 한센인들을 위해 헌신하셨던 온누리 선교회의 장로님들께서 세워 놓으신 사역지들이 태국의 여러지역에 있습니다. 그 중 태국 노회와 사역자에게 아직 모두 이양되지 않고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 센터가 방콕과 우본, 두 지역에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태국에 오기 전부터 이 두 센터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태국에서 한국본부 사역으로 돌아올 때와 비교해서 지금은 여러가지 상황들이 달라져 있었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구하였고, 결국 저희 가정은 방콕에서 계속 사역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가정 이야기]** 저희는 태국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신애 선교사는 학원에 다니면서 재우 선교사는 독학하고 있습니다. 단어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튀어 나오는 경험, 분명히 알았던 단어인 것 같은데 전혀 생각나지 않는 경험 모두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태국어를 공부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잘 배워서 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예준, 요엘, 그리고 마라 삼남매는 이곳에서 새로운 환경에 여러모로 잘 적응하는 것 같으나 아이들이 예전보다 더 자란 상태로 돌아왔기에 이전과는 다른 부분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여유롭게 기다려주어야 하는데 마음이 급해져서인지 그렇게 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저희가 이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제목**

1. 매일의 말씀묵상으로 하나님을 배우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2. 언어 공부에 진보를 더하시고 사역이 구체화 되도록